

##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목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 믿음의 결정 공동의회

안건 : 제44대 장로, 제24대 안수집사,

제52대 권사 피택의 건

일시 : 3월 27일(다음 주일)

4부예배 후(14:00)

장소 : 충현교회 본당

대상 :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지난 3월 당회에서 제44대 장로, 24대 안수집사, 52대 권사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미련하고 악하기에도(잠 6:5). 모든 교역자와 인사위원회, 모든 당회원은 더욱 간절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이제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공동의회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들이 모여 교회의 중요 회무를 처리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를 피택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세례교인은 반드시 참석하여 소중한 믿음의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일꾼(고후 11:13)이 아닌, honest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일꾼(골 1:23). 예수님의 좋은 일꾼(딤후 4:6)이 피택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 6:18).

\*피택 후보자 명단은 본지 4,5면

## 성령의 말씀(금요찬양집회)

###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

마태는 그의 메시아의 이야기를 결정짓는 특정한 성경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찾아낸 것인가? 그저 자기 마음에 내키는 정도에서 골라낸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성경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며, 말씀을 늘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예수님과 관계된 지역의 이름을 찾아보자(마 2:1). 헤롯왕 때이다. 마태는 분명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헤에서 나셨다고 선포하였다(마 5:2).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받은 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시골 베들레헤에서 나오리라는 예언이 있다고 백성들이 쟁론함을 볼 수 있다(요 7:41~43). 또 다른 지역은 애굽과 나사렛이다(마 2:13, 21, 23). 어린 시절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였다. 헤롯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계셨고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에 정착하였다(요 1:45~46). 그리고 후에 어렸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 말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마태의 동기는 1장에서 계보를 설명해 주는 목적과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성경의 이야기의 완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지명을 다루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는 베들레헤, 예루살렘, 동방, 애굽, 갈릴리, 나사렛,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 등 많은 지역을 언급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펼쳐졌으며(마 4:15~16), 이는 옛날 다윗 왕국의 전 지역이었다(마 4:23~25).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의 지역만큼 넓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 마태복음 1장에서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관점은 2~4장에서 보여주는 지역적인 관점으로 더욱더 확실해진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예언된 말씀대로 그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1장에서 보듯이 그 범위는 훨씬 넓다. 아브라함과 연결된 우주적인 범위가 있고 또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이방 여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창 17:3~6).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한다(마 1:1~6). 또한 이를 따르는 지역적인 부분도 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다. 그 후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께서 서편에 있는 애굽을 향해 가시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이야말로 성경 안에 있는 전 세계를 품는다. 특히 구약시대의 동쪽과 서쪽을 품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지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범위에 관하여 구약에 기록된 여러 예언 안에 포함되어 있다(사 19:21, 23~25).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특히 이스라엘이 구제될 수 있는 메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곧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창 12:1~3). 비록 마태가 기록한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 같은 복음서 일지라도 그는 메시아가 왔을 때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을 깨웠다(마 2:2~4). 이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 왔던 시바 여왕의 방문을 연상할 수 있다(사 60:1, 3, 5~6). 또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가서 거하셨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노릇하였던 출애굽과 연결되어 온 열방이 메시아에게 무릎 꿇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시 72:8, 10~14). 이처럼 예수님이 넓은 이방 세계에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넘어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완성성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여 주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아멘.

# REBUILDING

***(17)Then I said to them, "You see the bad situation we are in, that Jerusalem is desolate and its gates burned by fire. Come,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so that we will no longer be a reproach." (18)I told them how the hand of my God had been favorable to me and also about the king's words which he had spoken to me. Then they said, "Let us arise and build." So they put their hands to the good work. (19)But when Sanballat the Horonite and Tobiah the Ammonite official, and Geshem the Arab heard it, they mocked us and despised us and said, "What is this thing you are doing? Are you rebelling against the king?" (20)So I answered them and said to them,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therefore we His servants will arise and build, but you have no portion, right or memorial in Jerusalem."***

(Nehemiah 2:17-20)

Nehemiah was a contemporary of Ezra and Zerubbabel. He lived during the end time of Judah's captivity in Babylon. As a cupbearer to King Artaxerxes I, Nehemiah's position was a responsible one (certifying that none of the wine the king drank was poisoned) and an influential one (since such a trusted servant often became a close advisor). Having heard that the walls of Jerusalem had not been rebuilt, and having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king to go to Jerusalem to correct the situation, Nehemiah left his job with the king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It wasn't easy to leave his important position but his heart was broken over the ruined walls of Jerusalem. There are many places and many people in this 21st century that are broken and need restoration. Churches need rebuilding after spiritual decline, and Christians need rebuilding after backsliding and defeat. Like Nehemiah, how can we rebuild today?

We can rebuild through prayer. Nehemiah cried, fasted, and prayed when he found out that the walls of Jerusalem were broken down and its gates were burned with fire, "When I heard these words, I sat down and wept and mourned for days; and I was fasting and praying before the God of heaven. I said, 'I beseech You, O Lord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preserves the covenant and lovingkindness for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Neh. 1:4-5). Nehemiah praised God for His love and power. He cried out for God's help to rebuild. The Bible is filled with accounts of the great works of God through a kneeling figure. Sometimes plans of rebuilding may fail but prayer always prevails. Believing prayers place success in our reach despite obstacles. Christians should flee at once to Him who stills the sea. When Nehemiah told the king of his situation and the king asked him what he wanted, Nehemiah prayed to the God of heaven (Neh. 2:4). When we trust God and pray to Him, He answers. When Ezra was returning to Jerusalem with God's people they asked God for a safe journey, "So we fasted and sought our God concerning this matter,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Ezra 8:23). Prayer is important, especially for rebuilding.

We can rebuild through confession of sin. Nehemiah confessed his sins and those of his people before God in prayer, "let Your ear now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of Your servant which I am praying before You now, day and night, on behalf of the sons of Israel Your servants, confessing the sins of the sons of Israel which we have sinned against You; I and my father's house have sinned. We have acted very corruptly against You and have not kept the commandments, nor the statutes, nor the ordinances which You commanded Your servant Moses ... O Lord, I beseech You, may Your ear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he prayer of Your servants who delight to revere Your name, and make Your servant successful today and grant him compassion before this man" (Neh.

1:6-11). Nehemiah's confession was specific. Sins confessed are sins forgiven,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Confession of sin is the result of the conviction of the Holy Spirit. Confession of sins puts away self-righteousness, and recognizes God's love and grace. When we are cleansed by the confession of sin we can claim God's promise. Nehemiah claimed God's promise, just as Isaiah did, "Woe is me, for I am ruined! Because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with a burning coal in his hand, which he had taken from the altar with tongs. He touched my mouth with it and said,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and your iniquity is taken away and your sin is forgiven'" (Is. 6:5-7). Confessing sin makes us ready to rebuild and serve.

We can rebuild through making new commitments. After inspecting the walls of Jerusalem, Nehemiah went before the officials at Jerusalem and said, "Come,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so that we will no longer be a reproach" (Neh. 2:17). The majority of the officials responded, "Let us arise and build" (Neh. 2:18), and they put their hands to the good work. Sadly, a few mocked and despised Nehemiah's commitment and said, "What is this thing you are doing? Are you rebelling against the king?" (Neh. 2:19). Nehemiah's commitment was linked to a challenge. His commitment demanded the very best from himself and others. Not everyone was on board, but Nehemiah continued forward with his promise to God. God cleansed his sins and his faith was strong. He knew the pathway God wanted him to follow and he encouraged others to follow.

My dear friends, today is a good time to make a new commitment to Jesus Christ. Have you failed to carry through in the past? Confess your failure and rededicate your life to Him. Are you depressed and down? Please reconcile yourself with Jesus Christ and you will have peace and hear His voice through God's Word. Pray and confess your sins so that you can be refreshed,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were making an appeal through us; we beg you on behalf of Christ, be reconciled to God" (2 Cor. 5:20). When our hearts are right with God we can rebuild with confidence. The God of heaven will prosper us. Nehemiah told his critics, "So I answered them and said to them,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therefore we His servants will arise and build, but you have no portion, right or memorial in Jerusalem'" (Neh. 2:20). No doubters rebuilt the wall of Jerusalem. Those that helped with the rebuilding believed God and moved ahead. God is always up to the occasion. Are you ready to accept His invitation to rebuild? Let's rise up now and rebuild. Amen. 🙏

## 재 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하고”<sup>100</sup>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여 하매<sup>101</sup>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sup>102</sup>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2:17~20)



김성관 목사

1. 헤미야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유다 포로기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다사스 다 1세의 술 말은 관원이었던 그 책임(술 말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없는지를 증명하는 일을 담당함)과 영향력(가장 믿을 만한 신하였기에 왕의 충실한 조언자가 되었음)이 막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왕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과 함께 했던 직업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중요한 위치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과 장소는 무너져 있기에 재건이 필요합니다. 교회들은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타락과 실체로부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다” (느 1:4~5). 느헤미야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성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때때로 재건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 기도가 항상 승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성공을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느 2:4).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 그들 중 그들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느 8:23). 기도는 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 회개하라

우리는 죄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느 1:6~11). 느헤미야의 고백은 명확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 사람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

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죄의 회개는 성령의 책망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죄의 회개는 자기 의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사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사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절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사 6:5~7).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재건하여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 실천하라

우리는 새 일들을 실천함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면밀히 조사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방백들에게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느 2:17). 이 말에 대다수의 방백들이 “일어나 건축하라”(느 2:18)라고 대답했고, 그들은 재건을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몇몇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사역을 조롱하고 경멸하며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느 2:19)라고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변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역에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기에 그의 믿음은 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길을 알고 있었고, 이 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의 때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지속해 나가는 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드리십시오. 우울해지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느 2:20)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을 도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초대를 받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지금 다시 일어나 재건합시다. 아멘. ■

## 제44대 장로 후보자

**김영환**

나이 55  
교구 18  
봉사 부서 지역장  
고등부교사

번호: 1

**남용승**

나이 57  
교구 9  
봉사 부서 지역장  
가브리엘현양대

번호: 2

**박석산**

나이 59  
교구 7  
봉사 부서 지역장  
의료선교부

번호: 3

**변창대**

나이 54  
교구 10  
봉사 부서 지역장  
에바다부부감

번호: 4

**안연식**

나이 53  
교구 1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임마누엘현양대

번호: 5

**이희우**

나이 59  
교구 14  
봉사 부서 지역장  
초등1부부감

번호: 6

**임연수**

나이 49  
교구 21  
봉사 부서 지역장  
전도위원회간사

번호: 7

**최현구**

나이 57  
교구 13  
봉사 부서 지역장  
유아부부감

번호: 8

**허만선**

나이 54  
교구 5  
봉사 부서 베드로전도회장  
창년1부부감

번호: 9

**현준봉**

나이 52  
교구 22  
봉사 부서 지역장  
중등부부감

번호: 10

## 제24대 안수집사 후보자

**강주원**

나이 60  
교구 10  
봉사 부서 지역장  
새가족양육차장

번호: 1

**곽홍운**

나이 51  
교구 8  
봉사 부서 전도위실명위원  
중등부교사

번호: 2

**권태선**

나이 56  
교구 19  
봉사 부서 자원봉사팀장  
차량안내부

번호: 3

**김낙교**

나이 38  
교구 16  
봉사 부서 요한전도회장  
유치부교사

번호: 4

**김대식**

나이 39  
교구 7  
봉사 부서 창년2부부장

번호: 5

**김대학**

나이 47  
교구 1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사랑부교사

번호: 6

**김동의**

나이 62  
교구 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실로암현양대

번호: 7

**김승한**

나이 41  
교구 2  
봉사 부서 교구간사  
요한전도회장

번호: 8

**김옥**

나이 34  
교구 1  
봉사 부서 지역장  
요한전도회장

번호: 9

**김유석**

나이 36  
교구 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에바다부부감

번호: 10

**김정호**

나이 64  
교구 8  
봉사 부서 바울전도회장  
임마누엘현양대

번호: 11

**김창용**

나이 40  
교구 12  
봉사 부서 요한전도회장  
창년2부부장

번호: 12

**김판봉**

나이 47  
교구 20  
봉사 부서 소망부교사

번호: 13

**류동원**

나이 57  
교구 1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베드로전도회장

번호: 14

**문한성**

나이 38  
교구 5  
봉사 부서 요한전도회장

번호: 15

**박광용**

나이 46  
교구 1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16

**박근용**

나이 59  
교구 2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소망부교사

번호: 17

**박삼성**

나이 62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외선부교사

번호: 18

**박정환**

나이 57  
교구 1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래현양대

번호: 19

**박진수**

나이 42  
교구 1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소망부교사

번호: 20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25)



**박판수**  
나이 48  
교구 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21



**배현수**  
나이 59  
교구 2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편찬양대  
번호: 22



**성 중**  
나이 66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임마누엘찬양대  
번호: 23



**송한성**  
나이 55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교구간사  
번호: 24



**송현덕**  
나이 43  
교구 19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세가족양육차장  
번호: 25



**심재천**  
나이 54  
교구 20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세가족양육부교사  
번호: 26



**위길호**  
나이 44  
교구 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편찬양대  
번호: 27



**이동준**  
나이 44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세가족양육부교사  
번호: 28



**이오복**  
나이 57  
교구 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편찬양대  
번호: 29



**이인관**  
나이 62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위실행위원  
번호: 30



**이일영**  
나이 65  
교구 22  
봉사 부서 바울전도회장  
세가족양육부교사  
번호: 31



**이정진**  
나이 39  
교구 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중등부교사  
번호: 32



**임태현**  
나이 59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강년2부교사  
번호: 33



**전승기**  
나이 39  
교구 23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34



**전종수**  
나이 56  
교구 21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35



**전찬욱**  
나이 47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임마누엘로케스트라  
번호: 36



**정남규**  
나이 60  
교구 1  
봉사 부서 세가족양육차장  
신로암찬양대  
번호: 37



**조운재**  
나이 45  
교구 2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38



**최병일**  
나이 40  
교구 5  
봉사 부서 교구간사  
세가족양육차장  
번호: 39



**최승민**  
나이 41  
교구 4  
봉사 부서 교구간사  
남성구역장  
번호: 40



**최한태**  
나이 56  
교구 3  
봉사 부서 지역장  
번호: 41



**황경석**  
나이 58  
교구 4  
봉사 부서 아편찬양대총무  
남성구역장  
번호: 42



**황석한**  
나이 51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임마누엘찬양대  
번호: 43

\*다음 주일(3월 27일) 4부예배 후(오후 2시, 본당)

공동의회 시 장로 · 안수집사 후보자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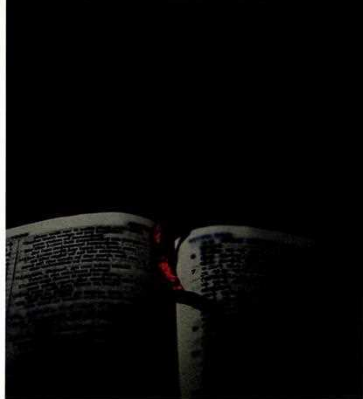
투표를 실시합니다.

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십자가 복음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디모데전서 1:15)



한 때 율법주의자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은 회개한 후 완전히 변화했다. 이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었으며,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것도 예수님뿐이었다. 바울은 '미쁘다' (신실한, 진실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선포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후 1:15).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미쁘다'라는 말을

사용(딤후 3:1, 4:9; 딤후 2:11; 딤후 3:8)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 ● 오신 예수님의 본성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본성은 인간적인 성품(인성)과 신적 성품(신성)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따랐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로고스)으로 묘사하였다(요 1:1,14).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 2:9)라는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지

만, 그 말씀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의 본성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롬 1:1~6).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는 반면 인성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탄생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여인의 임신을 통하여 나신 것이다(마 1:16,20,24). 동일한 사건에 대해 누가는 인간으로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기술하였다(눅 1:28,31,35). 예수님의 본성에는 생명(요 10:10)이 있으며 빛(요 12:46)이 있다. 동시에 참 진리(요 18:37)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요 10:15,30,38) 거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다(요 14:11,20,28).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 중에 죽으셨다(마 27:46; 빌 2:6~8).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 우리는 모든 이성과 지성을 다 동원할지라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본성에 대한 믿음이다(요 14:28; 마 24:36).

## ●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딤후 1:15).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 선고(롬 5:12, 6:23)를 받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제물의 피였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인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완벽한 피를 쏟으신 것이다(히 9:22). 무효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후 5:21).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회개(행 19:4)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롬 5:17,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4).

오신 예수님의 본성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고 믿어야 할 유일한 복음, 참된 진리다(딤후 4:9).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멘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한 새 예루살렘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러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세상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항복해야 한다. 삶의 목적과 궁극적인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70

### 자고 쉬어라

첫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마 14:39; 마 26:42). 그런데 세 번째 기도를 마친지 후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시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14:41~42, cf. 마 26:44~46).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쉬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곧바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단락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자고 쉬라... 일어나라"는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고 쉬라"는 말씀 뒤에 있는 "그만 되었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견해다. 마가가 제자들의 심태에 초점을 둔 것을 고려해 볼 때 두 번이나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그만 되었다. 모든 흥정은 끝났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써,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는 말일 수도 있고 역설적이나 애정 어린 명령일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책망의 외침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고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을 팔기 위한 모든 흥정이 끝난 상황(마 14:11)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고 쉬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내일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를 주시며, 생명을 주신다(요 14:6).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예수님만이 대안이 되어 주시는 기독교는 믿음이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은 이루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된 부흥은 성장하기 전 잠깐이었고, 이내 우리에게 의해서 철저히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잠잠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다. 주님의 교회를 어두운 터널로 끌고 가는 악인들이 바로 우리다. 이와 같이 교만하고 게으른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이 하신다. "누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 따르면 되는 것이다. "나의 믿을 약할 때 주가 붙들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들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011년 겨울성경학교

## 오직 예수

새벽에 전는  
깨비가 내린 터  
라 아이들이 못  
을 줄 앞인데,  
주님을 만나려  
온 아이들이 너  
무 애뻐고 학부  
모임들한테도 강



사했다. 나는 올해로 3년째 유아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매번 '때가 되면 하는 행사니까 해야지'라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루 빨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싶었다. 릴레이 공식기도를 하며, 3주간에 걸쳐서 성경학교 때 진행할 각 과의 프로그램들을 미리 시연하기도 했다. 바쁜 가운데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무사히 성경학교를 마쳤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들었다. '아이들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할 것', '성경학교를 위해 온 맘 다해 기도할 것'. 그래도 나는 고백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고. 정지애(교사, 유아부)

## 성경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아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 때 역사하신 하나님, 최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

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알쏭을 지어왔다. 또한 점도 배웠기. 만들기, 성경책의 이름과 순서를 게임으로 알아보기, 예쁜 물동을 지어 '성령의 열매' 찬양 고대, 인형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가 성경 안에서 순조롭게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욱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이혜숙(교사, 유아부)

## 겨울성경학교가 너무너무 좋다



나의 꿈은 바울 사도 같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때 우리 다양한 선생님께서 전도의 방

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같은 어린이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나도 다른 나라 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선교현금도 하고 우리 선생님이 캄보디아에 가실 때 꼭 함께 기도해 드릴 것이다. 지금은 내가 어려서 보내는 선교사이지만, 열은 커서 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선교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겨울성경학교가 너무너무 좋다. 김소현(초등1부)



##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에 해당하는 만들기와 놀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부족함을 또 다시 느끼며 여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지도와 지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법이 만들기, 놀이를 통한 홍해 건너기 체험을 준비하면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나는 9번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야 주님이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알게 되었다. 비록 다른 성경학교와 별 다를 바 없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이번 성경학교는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경학교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학교였다. 구순홍(교사, 영아부)



사순절을 알자(2)

##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흘린 피를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죽은 수년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외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40일 동안 금식이었으며, 사순절 기간 아무 한 끼나 저녁 식사만 허락하고 육식은 물론 생선 정도는 육식까지도 금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새 생명의 탄생을 연상케 하는 달걀이나 우유 등의 음식까지도 규제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고 한다. 그러나 9세기 이후 금식 규정이 완화되어 15세기에 와서는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 되었으나 의식적인 금식보다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경건인 훈련을 통한 내적인 자기정화 및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삶을 맛보며 주님을 본받는 데 부합한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교구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교구 인도자  |
|------|-----|------|--------|------|-----|------|---------|
| 1801 | 이말선 | 양육반  | 13 박경혜 | 1818 | 황지원 | 고등부  | 21 장혜주  |
| 1802 | 이영자 | 양육반  | 1 최선미  | 1819 | 박성현 | 양육반  | 21 박상대  |
| 1803 | 손 진 | 양육반  | 9 홍순철  | 1820 | 최정현 | 양육반  | 13 정영명  |
| 1804 | 김준근 | 대학부  | 2 박종철  | 1821 | 조은정 |      | 3 김정민   |
| 1805 | 임원재 | 중등부  | 2 정원원  | 1822 | 권영문 |      | 3 김정민   |
| 1806 | 이재현 | 중등부  | 12 김점례 | 1823 | 이하은 | 유치부  | 25 구영자  |
| 1807 | 신현국 | 양육반  | 23 홍경숙 | 1824 | 이필승 | 유치부  | 25 구영자  |
| 1808 | 김채원 | 유아부  | 7 유선덕  | 1825 | 이희승 | 영아부  | 25 구영자  |
| 1809 | 복민성 | 청년1부 | 10 신지수 | 1826 | 김은희 |      | 19 김원희B |
| 1810 | 민정숙 | 양육반  | 12 이희영 | 1827 | 목현수 | 청년1부 | 7 김순금   |
| 1811 | 김기주 | 양육반  | 1 김유자  | 1828 | 다빛은 | 외선부  | 26 박정현  |
| 1812 | 한혜화 | 양육반  | 9 서민준  | 1829 | 민지은 | 양육반  | 6 구영자   |
| 1813 | 송대준 | 양육반  | 3 조은선  | 1830 | 유지인 | 청년1부 | 1       |
| 1814 | 윤대선 | 양육반  | 23 윤부기 | 1831 | 정하림 | 대학부  | 18 유원철  |
| 1815 | 임성균 |      | 17     | 1832 | 김하은 |      | 7 정성민   |
| 1816 | 유재준 | 청년1부 | 10 윤관우 | 1833 | 정기욱 | 양육반  | 8 정철원B  |
| 1817 | 이윤정 | 양육반  | 2 김명식  | 1834 | 최심호 |      | 17 고진순  |

